



Hello! My name is Sister Donna Mulligan. Currently I am the Director of Pastoral Care for four parishes in Connellsville and Dunbar, Pennsylvania. I grew up as the oldest of three children in Nicktown, a very small Catholic village. My family was very devout and at an early age I had a lot of contact with sisters and priests. This included my four cousins who were Sisters of Mercy and the many religious who taught in my grade school and at Bishop Carroll High School. I think the roots of my vocation lie in these youth experiences. I used to help my grade school sisters after school, putting up bulletin boards, correcting papers, etc. I also had the “privilege” for three years of helping to clean the entire local convent every Friday afternoon instead of having art. Back then, I didn’t like art, so it really was a privilege!



I attended Penn State University and majored in Secondary Math Education. After graduation I taught for 12 years in Catholic schools in Altoona and Loretto, Pennsylvania. Along the way I also earned, a MEd. degree as a reading specialist from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Although I taught reading and math, my real joy was teaching religion, both at school and in my parish. At this time I was also very active in my parish in liturgical ministries, the Saint Vincent de Paul Society, and sacramental preparation. After college I had thoughts off and on of entering religious life. I tried to



push them aside, but the urge continued to grow stronger. So I began a discernment process. The community charism, the love for the Eucharist, and the commitment to serve the poor attracted me to the Sisters of Charity. After participating in two summer ministry experiences with the sisters, I entered the community on August 20, 1988.



My first ministry, after novitiate, was as an assistant chaplain for four years in a 365 bed nursing home. I enjoyed it, but my mother became ill and I needed to be closer to her. There was an opening for a pastoral associate in Blairsville, and I served there for 3 years before attending Washington Theological Union to earn a MA in Theology. After completing my degree, I became Director of Campus Ministry at Seton Hill for 4 years. This was followed by an 8 year stay as a pastoral associate in central Indiana County, before accepting the position I have held now for 8 years in Fayette County. I can honestly say I have loved all my ministries and the people I have had the privilege to serve.

I am an avid sports fan especially of Penn State along with the Steelers, Penguins and Pirates. I love to do puzzles of all kinds and like mysteries to read or watch on TV. I know I am most blessed to be a Sister of Charity!





안녕하세요! 저는 도나 멀리건 수녀(Sister Donna Mulligan)입니다. 현재 펜실베니아 주 코넬스빌과 던버(Connellsville and Dunbar)에 있는 네 곳의 본당에서 본당사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가톨릭 마을인 닉타운(Nicktown)에서 세 명의 형제 중 맏이로 자랐어요. 저희 가족은 매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신부님, 수녀님들과 잘 알고 지냈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다닌 초등학교와 비숍 캐롤 고등학교(Bishop Carroll High School)에서 가르쳤던 많은 수녀님들도 있고 또 저의 네 명의 사촌이 자비의 수녀회(Sisters of Mercy) 수녀님이셨지요. 제 생각에 저의 성소의 뿌리는 이 어린



시절의 체험에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방과 후에 게시판 꾸미기나 시험지 채점과 같은 일로 수녀님들을 도와드리곤 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매주 금요일 오후에 미술 시간 대신 수녀원 청소를 도와드리는 '특권'을 누리기도 했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미술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특권을 누렸던 것 같아요!

저는 펜실베니아 주립 대학(Penn State University)에서 중등 수학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 펜실베니아 주의 알투나(Altoona)와 로레타(Loretto)에 있는 가톨릭 학교에서 12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지요. 그리고는 펜실베니아의 인디애나 대학(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읽기 교육 전공으로 교육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비록 읽기와 수학을 가르치긴 했지만 사실 진짜로 좋아하는 일은 학교와 본당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본당에서 전례 분과와 빈첸시오 회 활동, 성사준비도 열심히 했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끔씩 수녀회 입회에 대해 생각을 했었어요.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제 안의 갈망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분별과정을 시작했지요. 우리 수도회의 카리스마와 성체에 대한 신심, 가난한



이들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가 제 마음을 사랑의 수녀회로 이끌었습니다. 수녀님들과 함께 두 번의 여름 사도직 체험에 참석한 후 마침내 1988년 8월 20일 입회를 했어요.

양성기 이후, 첫 번째 사도직으로 4년 동안 근처에 있는 365 개의 침실이 있는 양로원에서 사목협조를 했습니다. 즐겁게 사도직을 했었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어머니와 가까이 있어야만 했어요. 블레어스빌(Blairsville)에 사목 협조 사도직이 생겼고 거기에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 석사과정을 위해 워싱턴 신학 대학원(Washington Theological Union)에 들어갔어요. 학위를 받은 후, 4년 동안 씨튼힐 대학에서 학교 사목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현재 페이엣 카운티(Fayette County)에서 8년 동안의 사목협조 사도직을 맡기 전에 8년 동안 중부 인디애나 카운티에서 사목협조를 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사도직을 좋아했고 제가 봉사했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성적인 스포츠 팬이에요. 특히, 미식 축구 팀 스틸러스(Steelers), 아이스 하키의 펭귄즈(Penguins), 프로야구의 파이렛츠(Pirates)와 같은 펜실베니아 주 팀의 열렬한 팬입니다. 모든 퍼즐 맞추기를 좋아하고 추리소설을 읽거나 TV 보는 것도 좋아하지요. 제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사랑의 수녀가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